

2025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여름방학 특별 공연
2025 GCM* Summer Vacation Special Program

창작 어린이극
children's theatre

우리말로 우리 날

The day of our voice



2025. 7. 26.(토) ~ 8. 10.(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층 공연장

우리말로 우는 날

음성소개 QR



〈우리말로 우는 날〉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극학과, 더 연과 협력하여 제작한 창작 어린이극입니다.

접근성: 자막해설/음성소개/쉬운 안내글/점자



우리말로 우는 날

기획의 글
김종석



"이 소리는 누구의 것일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한 소리를 지니고 있다. 소리는 단지 입 밖으로 나오는 음성이 아니라, 존재를 이루는 가장 깊은 떨림이자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우리는 그 떨림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과 연결되며, 삶의 방향을 정해간다.

〈우리말로 우는 날〉은 바로 그 '자신의 소리'를 되찾기 위한 이야기이다. 이번 작품은 1946년에 발간된 어린이 잡지 『주간 소학생』(1946년 3월 11일/5호)에 실린 짧은 희곡 『해방된 짐승들』에서 시작되었다. '유석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글은 일제 강점 기간 동안 목소리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해방을 맞이하여 각자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이 글은 특정한 역사적 순간을 배경으로 하되, 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내가 진짜로 내는 소리는 무엇일까?"

동물들은 어느 날, 더 이상 자신의 울음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다. 누군가의 규칙에 따라 이상한 소리를 흉내 내고, 진짜 자기의 소리는 점점 사라져갔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소리가 사라지자,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된다. 이 이야기는 결국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존재들'의 여정이다. 그리고 이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아이들,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말'이라는 구체적인 언어를 매개로, 존재의

근원적인 소리를 되찾는 여정을 함께 그리고자 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는 힘이며, 나의 감정과 세계를 꿰뚫는 숨결이다.

〈우리말로 우는 날〉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창작진이 협업을 통해 새롭게 제작한 창작 어린이극이다. 지역의 문화기관과 교육기관이 힘을 모아, 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여름방학 동안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특별 공연으로 진행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나눌 수 있는 깊이 있는 예술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대 위에는 동물 가면, 그림자극, 호랑이 인형, 그리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정겨운 동요들이 함께한다. 어린이들이 무대와 호흡하며 참여하고, 어른들이 그 안에서 오래된 기억과 감정을 되새기는 공연인 〈우리말로 우는 날〉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진짜 소리'를 깨우는 작은 여정이자, 말과 존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사유이길 바란다.

김종석은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연극 연출가이며 거리에술 축제의 연출자이자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노이즈 오프〉, 〈졸업〉, 〈만선〉, 〈코카서스의 백목원〉, 〈쥐덫〉 등 다수의 연극을 연출하였으며 안산 거리극 축제, 서울 거리에술 축제, 청춘 마이크 페스티벌, 과천 축제, 하이스쿨 페스티벌 등의 예술감독을 역임하였다.

진짜 소리를 찾기 위한 용기 있는 여정

한때 서로의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동물 마을은 외래 동물인 하이에나의 지배 이후 혼란에 빠진다. 하이에나는 자신의 언어를 강요하며, 강아지는 '완완(ワンワン)', 고양이는 '냐냐(ニャーニャー)', 돼지는 '부부(ブーブー)', 소는 '모오(モー)'라고 울라고 한다. 그 결과, 동물들은 더 이상 '멍멍', '야옹', '꿀꿀', '음메'라는 저마다의 고유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른 말로 울음소리를 흉내 내며 살아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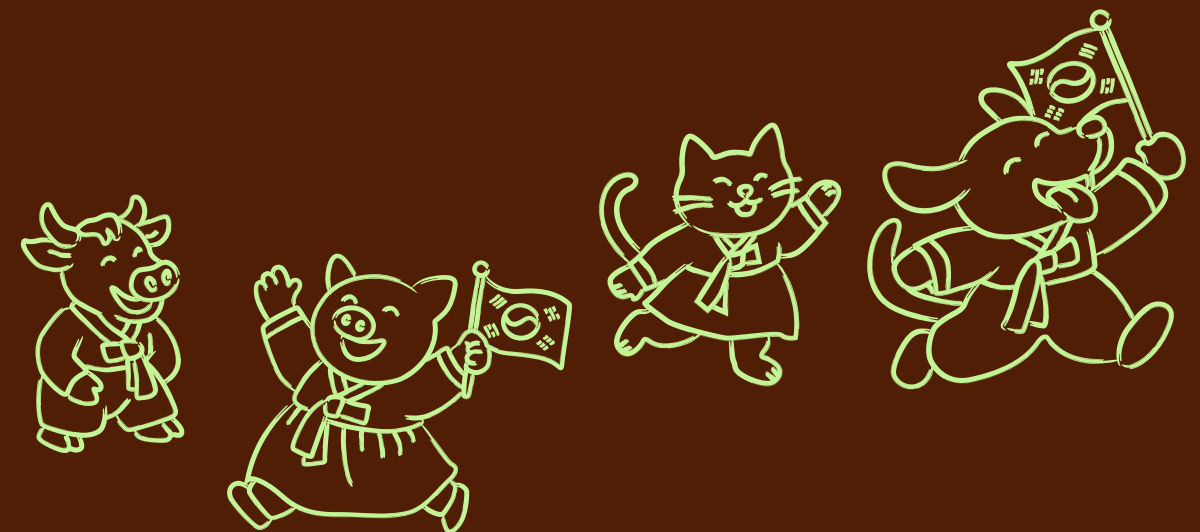
하지만 이 낯선 소리에는 마음의 떨림, 감정의 진동이 없다. 동물들은 혼란과 침묵 속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울음을 점점 잊어가며 고립되어 간다. 3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 해방이 된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동물들은 그 시간에 한 번도 자기의 소리로 울어본 적이 없어 본인의 소리도 마음도 잃어버렸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숲 속에 살던 다람쥐는 동물들의 기억을 간직한 호랑이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려고 한다.

결국, 동물들은 자신의 진짜 소리를 되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여행을 떠난다. 그 여정의 과정에서 외국어로 우는 다른 동물 친구들을 만나 새로운 울음소리를 듣는다. 개는 러시아식으로 '가프 가프(гав-гав)', 고양이는 프랑스 말로 '미야우(Miaou)', 소는 영어식으로 '무우(Moo)' 돼지는 중국식으로 '흥흥(哼哼)'이라고 우는 것을 듣게 되지만 흥내 내보아도 자신의 마음과 소리에 맞지 않아

자신의 소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동물들은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 처음 만난 호랑이는 너무 두려웠지만 호랑이는 잊힌 언어의 흔적이 살아 숨 쉬는 장소, '기억의 연못'을 알려준다. 호랑이는 단지 무섭고 위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랜 시간 '말'을 지켜온 소리의 수호자로 등장한다. 호랑이는 동물들에게 "네 마음이 울 때, 너는 어떤 소리를 내고 싶니?"라고 물어본다. 그 곳에서 동물들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소리를 찾아낸다.

호랑이의 안내로 동물들은 하나하나 잃어버린 기억을 되짚으며, 자기 몸에서부터 다시 '우리말' 소리를 불러낸다. 그리고 즐겁게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 소리를 많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경험하는 연극

연출의 글
정성훈



아이들에게 언어는 단지 익혀야 할 기술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언어는 자신의 감정과 존재를 드러내는 '소리'로 다가온다. 〈우리말로 우는 날〉은 아이들이 '자기만의 말', 곧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을 체험하는 연극이다. 연출가로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린다면 "아이들에게 말과 소리의 진짜 의미를 어떻게 감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일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공연은 '이해시키는 연극'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연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연 안에서 말과 울음, 침묵과 기억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극적 장치를 활용했다. 우선, 동물의 울음소리를 통해 '소리와 감정의 연결'을 탐색하게 한다. 아이들은 강요된 낯선 소리와 익숙한 자기 소리의 차이를 들어보며,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자연스럽게 감지하게 된다. 배우들은 머리 위에 가면을 쓴 채, 맨얼굴로 연기하며 동물의 몸짓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이로써 아이들은 '언어' 이전의 표현, 몸의 진동과 눈빛에서 나오는 울림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자극과 인형극은 동물들이 기억과 상상의 세계를 여행할 때 그 몽환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또한, 극 중간마다 등장하는 동요는 단지 추억을 불러오는 요소가 아니다. 동요는 어린이들에게 감정을 연결하고, 함께 부르며 참여하는 순간을 제공한다. 특히 동요의 가사를 새롭게 개사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언어를 놀이처럼 익히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호랑이'는 아이들 눈에 무서운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연극 속에서는 오히려

말의 수호자로, 부드러운 지혜를 지닌 존재로 나타난다. 호랑이의 질문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인 것이다.

"네 마음이 울 때, 너는 어떤 소리를 내고 싶니?"

이 말은 극의 전환점이자, 관객에게 직접 건네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 연극은 하나의 정답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아이들이 무대 위 동물들과 함께 상상하고 부딪히고 노래하며, 자기 내면의 소리를 찾아보도록 돕는 여정이다. 〈우리말로 우는 날〉은 관람하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고, 노래하는 참여형 이야기로 아이들은 '우리말'을 배운다기보다 '느끼게' 될 것이다. 자신의 소리가, 자신의 마음과 얼마나 닿아 있는지를 말이다.

정성훈은 연극 연출가이자 연극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공연의 연출 작업과 함께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연극교육과 공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연출 작업으로는 〈스트립티즈〉, 〈유쾌한 유령〉, 〈집으로 날아가다〉, 〈손님〉 등이 있으며 최근, 청소년 연극교육 프로그램인 〈꿈의 극단〉 2024년 2025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기억과 흔적의 질감

미술감독의 글
이유정



〈우리말로 우는 날〉은 단지 이야기를 ‘보여주는’ 연극이 아니다. 이 연극은 관객, 특히 어린이들이 스스로 장면 안으로 들어가 함께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을 설계한 무대이다. 이 작업은 ‘보는 세계’와 ‘느끼는 세계’를 어떻게 겹쳐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탐구의 결과이다.

작품의 중심에는 ‘기억의 연못’이라는 상상 속 장면이 있다. 이 연못은 단지 하나의 배경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마주하고 참여해야 할 내면의 공간이다. 무대에서 연못은 물리적으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반짝이는 천, 조명, 소리, 그림자, 그리고 아이들의 상상으로 채워지는 공간이다. 아이들은 배우들의 초대로 직접 그 연못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이 장면에서 ‘관객의 기억’이 극에 진입하는 순간이 된다.

무대 전체는 ‘기억’과 ‘흔적’이라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도록 디자인하였다. 동물 가면은 입체적으로 제작했지만, 배우의 얼굴 위로 올려 쓰는 방식으로 착용한다. 이는 관객이 배우의 표정과 감정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동시에 이 가면은 동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오브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기도 하다. 말을 잃어버린 동물들이 다시 자신의 울음소리를 되찾아 가는 여정이 가면을 쓴 배우들의 움직임을 통해 시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또한 무대에 보이는 그림자 세계는 이 연극의 또 다른 층위이다. 그림자는 말하지 못한 기억이자,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소리의 흔적’이다. 그림자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독립된 층으로 기능하며, 배우의 실루엣, 동물의 윤곽, 때로는 아이들의

손짓이 실시간으로 투사된다. 이렇게 그림자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며,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 공연은 전체적으로 ‘무언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지 머리가 아니라, 몸과 눈, 귀, 손으로 불러오는 기억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듣고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무대의 감각적 언어로 직접 들어가 함께 상상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구조로 무대를 설계했다.

〈우리말로 우는 날〉은 어린이들이 참여함으로써 완성되는 연극이다. 우리가 담은 것은 작은 질문, 작은 빛, 작은 그림자들일 뿐이다. 그 위에 아이들의 목소리와 감정이 더해질 때, 이 무대는 비로소 완성된다. 기억의 연못은 결국 아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연못이기 때문이다.

이유정은 무대미술가이며 연극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다. 〈토막〉,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그을린 사랑〉, 〈만선〉, 〈달빛 속으로〉등의 무대 디자인을 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공연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어린이 연극

해 방 된 짐 승 들

유 석 빈

때——8.15 이후의 어느날

곳——어느 산속

나오는 사람——산신령님.

나오는 짐승——뿔소, 돼지, 염소, 여우, 토끼, 까마귀, 호랑이, 개.

무대——배경은 나무가 뿔뿔하게 드리운 수풀. 돼지 이외의 다른 짐승들은 모두 등장하여 있다. 잠깐 뒤에 돼지가 어슬렁 어슬렁,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다른 짐승의 눈치를 보며 겁쟁이처럼 등장한다.

돼지 (호랑이 앞에 가서 꿀벌절을 하면서) 호랑아 저씨,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왜 모이라고 하셨어요?

호랑이 오냐. 일본이 항복을 해서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우리들 짐승도 울음소리부터 왜 냄새가 안나도록 해야 할테니까, 오늘

산신령님께서 우리 나라 짐승의 정말 울음소리를 가르쳐 주신다.

돼지 고맙습니다. 호랑아 저씨. 어이구 좋아라. 어이구 좋아라. (느려선 가운데로 줄을 주며 들어간다.)

개 (고개를 기웃하며) 산신령님께서 어찌 이렇게 더디게 오시나.

여우 (고개를 기웃하며) 뿔소 (팔뚝시계를 보는데 하며) 오실 시간이 거만 됐는데, 까마귀야. 너, 잠깐 날러 가서 보고 오너라.

까치 (보는 시늉을 한다.) 아! 저기 오신다, 오셔. 산신령님께서 저기 오신다.

여러 짐승 어디 어디. (제각기 앞으로 나와서 보려고 한다.)

호랑이 쉬어. (하고 말한다.) 조용해라, 조용해.

여러 짐승 (정돈한다. 그리고 긴장한 빛이 떠돈다.) (‘에헴, 예

헴, 하고, 기침을 하며 산신령 등장.)

여러 짐승 산신령님. 안녕하십니까?

산신령 오오냐. 다들 모였느냐?

여러 짐승 예, 다들 모였어요. 산신령님. 어서 우리들에게 우리 나라 정말 울음소리를 가르쳐 주세요.

산신령 그래라. 누구부터 가르쳐 줄까? 처음부터 차례로 가르쳐 주마.

(답을 보고) 닭아, 너는 8월 15일 전에는 뭐라고 울었니?

닭 예. 나는 “고게고교”라고 울었어요.

산신령 “고게고교” 근사하지만, 어찌 왜 냄새가 몹시 나는구나. 인제부터는 “교교오”라고 울어라. 어디 울어라.

닭 (황개를 치며 목청을 빼어) 교교오. 교교오.

여러 짐승 (손뼉을 치며.) 야야 참. 잘 운다.

산신령 (소머리) 애, 소야. 너는 전에 뭐라고 울었니?

소 예. 나는 “모, 모.” 하고 울었어요.

산신령 못두 울었었구나. 인제부터는 “엄매애”하고 울어라.

소 엄매애, (서투르게)

여러 짐승 다시, 다시.

소 (크게) 엄매애. 엄매애.

여러 짐승 (손뼉을 치며) 잘한다, 잘해.

산신령 그 다음에는 돼지로구나, 돼지야. 너는 무어라고 울었었니?

돼지 예. 나는 무어라고 울었었던가. (고개를 기웃하더니) 울치, 울치. “구, 구.” 하고 울었어요.

산신령 인제부터는 꿀꿀이라고 울어.

돼지 꿀꿀. 꿀꿀. 꿀꿀. 꿀꿀.

여러 짐승 그만해. 그만해. (박수)

산신령 (염소머리) 네 이름은 뭐걸까? 응, 염소영감이지. 영감은 무어라고 울었던가.

염소 일본말로 울던것은 말하기도 싫습니다. 어서 우

리 조선 울음소리를 가르쳐 주세요.

산신령 그래라. 너는 매애애애라고 울어라.

염소 매애애애애애애애.

여러 짐승 (손뼉을 치며) 염소영감. 참 잘 하는구려.

산신령 (여우 보고) 여우야, 너는 무어라고 울었지?

여우 쿵, 쿵하고 울었어요.

산신령 인제부터는 캥캥이라고 울어라.

여우 예, 캥캥. 캥캥.

여러 짐승 예 저쪽 보고 울어라.

산신령 (토끼머리) 토끼님은 울던가, 안 울던가.

토끼 울지는 않아도 말은 해요.

산신령 무어라고 말을 했니?

토끼 모시모시 가메요 가메상요. 세까이도 우찌데 오마에호도……

산신령 애, 듣기도 싫다, 왜 말은. 인제부터는, 여보, 여보, 거북님, 내 말 들어보오. 천지간 동물중에 네말가지고, 저 같이 느린 걸음 처음 보았네……라고 해라.

토끼 (산신령님께서 가르쳐 주신것을 노래로 한다. 몸짓도 하면서.)

여러 짐승 (박수) 야야 아주 명창이구나.

산신령 (까마귀 보고) 까마귀야. 너는 가르쳐주어도 잊어버릴테니까, 던져대도 울어라.

까마귀 예, 까악, 까악, 까악.

여러 짐승 하하하, 하하하.

산신령 (호랑이 보고) 산중호걸 호랑이로군. 전에 뭐라고 울었었나.

호랑이 나는 언제든지 어흥이에요.

산신령 자네야 그렇겠지. 그럼 어디 울어보게.

호랑이 (우렁차게) 어흥, 어흥 어흥.

여러 짐승 아유 무서워라.

산신령 (개머리) 개야, 너는 무어라고 울었었니?

개 왕왕이라고 울었어요.

산신령 인제부터는 멍멍이라고 울어라.

개 멍멍, 멍멍멍멍, 멍.

여러 짐승 하하하하. (박수)

——웃음판 속에서 막대 내린다——



연습 장면





닭/하이에나/다람쥐/호랑이

박인규

2024 연극 <세자매> 끌리긴 역
2024 뮤지컬 <맘마미아> 에디 역
2024 뮤지컬 <No day but today> 앙상블
2025 연극 <거리의 사자들> 스칼라토, 빌, 론 역



돼지

이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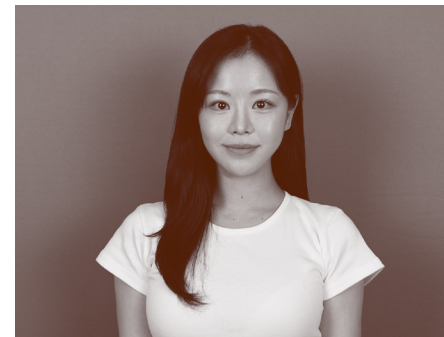
2023 연극 <도가니> 메어리워렌 역
2024 연극 <래러미프로젝트> 레지플루티, 어멘다 그로닉 역
2024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얼렁뚱땅! 뚱땅이의 하루!> 꾸러기 역
2024 뮤지컬 <No Day But Today> 모린 역



송아지

안수진

2024 뮤지컬 <No day but today> 모린 역
2024 뮤지컬 <맘마미아!> 타냐 역
2024 연극 <래러미 프로젝트> 애런 크라이펄스 외 7개 역
2024 연극 <소년 B가 사는 집> 윤아 역
2023 연극 <도가니> 베티 역
2023 연극 <과학하는 마음 진화하는 오후> 코지마 토시코 역



강아지

황연주

2024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얼렁뚱땅!뚱땅이의 하루> 뚱땅이 역
2024 연극 <고마운 약, 무서운 약> 약순 역
2025 연극 <그날의 타이밍> 지유, 나영 역
2025 연극 <두근두근 알고리즘> 선영 외 멀티 역



고양이

이선주

2024 뮤지컬 <맘마미아!> 샘 역
2024 연극 <우리읍내> 조지 역
2025 연극 <제 18공화국> 리수독 사령관 역
The March100 합창단 단원

예술 감독	김종석
대본	이유정 정성훈
연출	정성훈
미술 감독	이유정
음악 감독	김정용
무대 디자인	김태환
무대 제작 감독	박영훈
소품 디자인	윤미연
무대	김세연 이서현
소품	윤지민 한지원 김채은
의상	이다해
음향	백서영
음향 크루	박영성
조명	정해린
조명 크루	박민서 최영빈
영상	박서연
운영	정하정 김유리
자막 운영	김민서

*도움주신 분
김은하(강남대학교), 김호연(강남대학교), 이고은(수원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숙형

*〈우리말로 우는 날〉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2025년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창작 어린이극으로 이 공연의 저작권은 저작권자들에게 있으며 재공연을 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총괄	이지희(관장 직무대행)
학예 총괄	한준영(학예연구팀장)
기획 지원	구정화 한명희
운영 지원	우수진 정은주
홍보	김지애
시설	배지현
그래픽 디자인	김혜린
영상	컬쳐앤미디어(곽영규 함충협 현진희)
사인물	진디자인
인쇄	효성문화
접근성 제공	(주)한국콘텐츠접근성연구센터
자막 해설	서수연 크리스탈
쉬운 글, 음성 소개	서수연
접근성 매니저	크리스탈
점자 번역	황진경
학예 지원	강슬기 김단오 김수성 박혜린 천혜인
행정 지원	오미미 조은정 최용학
운영	우지영 오영진 김수정 신남종 정아 김영숙 윤지현 이유진 정혜진 장소명 윤희애
시설	김광준 김영춘 유현호 문성호
기술	나상훈
안내	박주희 백선희 송미연 이해연 이하빈 최은진
미화	김은주 김민정 양자영 방효복 곽성종
보안	유병규 이건호 김기원
보건	강경희
뮤지엄숍	이동희

2025년 여름방학 특별 공연

창작 어린이극

〈우리말로 우는 날〉

주최·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GYEONGGI CHILDREN'S MUSEUM

협력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극학과, 더 연

공연기간 2025. 7. 26.(토) ~ 8. 10.(일)
(휴관일과 8월 5일-8일에는 공연이 없습니다.)

공연시간 (50분) 11:30, 15:30(평일, 주말)

관람연령 만 48개월 이상

관람료 10,000원(박물관 입장료 별도)

관람예약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지지씨 멤버스에서 예약

예약문의 031-270-8621

프로그램 문의 031-270-8639

접근성 자막해설/음성소개/쉬운 안내글/점자

- 주의사항
- 공연관람 예매와 별도로 박물관 입장권을 예매해야 합니다.
 - 공연시작 1시간 전 선착순으로 좌석표를 배부하며 별도의 발권 없이 2층 공연장 앞에서 확인 후 배포합니다.
 - 공연시작 10분전 확인 후 대기순 입장합니다.
 - 공연시작 후 입장은 불가합니다.
 - 초등학생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장해야 합니다.
 - 관람연령 미만의 어린이는 입장이 불가합니다.